

## 지리산에서 볼로냐까지

—김남두 선생님과 함께 걷는 길—

김혜경  
(인제대 인문학부)

산을 과연 탈 없이 넘을 수 있을까?

대학원 정규수업과 병행해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꾸준히 모였던 고전강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토론 주제도 제법 모였으니 공부 점검을 위한 작은 발표회를 겸해 다른 산도 아닌 지리산을 제대로 경험해보자 하셨다. 걱정이 왜 없었겠는가? 공부보다도 체력단련을 먼저 했어야 했다는 선배의 농이 무겁게 느껴질 무렵 산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혔다. 밀든 끝든 끝까지 함께 오르자는 서로를 향한 응원에 힘입어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파란만장했던 80년대를 마감하는 그 가을, 우리들은 선생님과 지리산을 향했다.

석사과정 첫 학기인 1986년 3월 김남두 선생님과 의 첫 수업은 플라톤의 『국가』를 교재삼아 이루어졌다. 수업의 기초는 텍스트분석이었다. 세부전공을 달리하는 석·박사과정의 선배들이 활발히 토론을 벌이는 학기 초반, 나는 비교적 얌전히 앉아 있었다. 고전철학을 전공하겠다는 마음이야 일찌감치 먹고 있었고 순서가 돌아오면 발제는 나를 준비해 갔지만 아직 토론에 끼어들 감량이 못됨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관찰자처럼 지내기를 얼마지 않아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다. “생각을 좀 더 진행하면 어떤 논의가 가능하겠어요?”, “좋아요, 그럼 그 얘기를 밀고나가 분명하게 만들어 보죠.”, “좀 전의 우리 논의와 연결하면 어떻게 될지 한 번 봅시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개진하는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다. 순진한 관찰자이기를 그치고 선배들 틈에서 이런 저런 입을 떼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선배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통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어설피고도 건방진 생각이 뻗속 어딘가에서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후에도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셨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내놓고 토론하도록 하는 세미나는 철학과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방식 중의 하나이다. 세미나에서 논의의 맥락에 맞게 특히 넘치지 않게 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이는 단순한 솜씨 발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성실히 듣는 일이 말하기보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함을 나는 꽤 오랜 후에야 알았다. 영근 생각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내놓는 말보다도 듣고 기억하고 연결하는 귀의 힘이 절대적임을 첫 번째 학기 후 오늘까지 이어지는 선생님과 공부에서 깨닫고 있다. 내게 선생님은 반짝 아이디어 제출에 만족하여 찰랑대며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붙잡아서 꾸준히 단련해야 함을 가르쳐주시는 분이다.

선생님의 전공수업은 상당 기간 플라톤철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고전강독 역시 그랬다. 학생들의 공부 기초를 일정히 쌓은 후 선생님께서는 강의와 텍스트 연구를 소피스트와 자연철학자들로 넓혀나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생님과 희랍고전만을 읽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철학적 관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출발로 해서 『정신지도규칙』과 자연학 주제의 저술 등으로 이어지던 독회에도 오래 참여했다. 그곳에서 『리바이어던』도 재미나게 읽었다. 선생님과 플라톤공부를 하며 익혔던, 말하자면 텍스트분석 실력이 여러 시대 철학자들의 글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희랍고전 강의만을 할 수는 없는 요즈음 학생들과 때때로 루소, 흄스, 데카르트를 읽으며 그 때의 공부가 바탕이 되었음을 절감한다. 마침 당시에 묶어두었던 발제 문철을 찾아보니 첫날이 1989년 4월 14일이라 꼬불꼬불 적혀 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선생님께서 세우시는 학풍 덕에 우리는 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다. 연구실과 강의실을 찾는 제자들과 독회 참석자들의 면면은 시간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지만 연구의 품을 꾸준히 키워 가셨던 선생님은 항상 계셨다. 몇 해 전 선생님의 『법률』 번역 윤독모임에 들어갔을 때에도 86년 첫 수업을 같이 들었

던 선배와 선생님을 마주하고 같이 앉아 토론하는 식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부를 멀리 하거나 게으름을 무마하려 들면 선생님은 일단 기다려주셨다. 다만 도피가 길어지면 꾸짖으신다. 플라톤학회가 열렸던 2010년 여름 도쿄에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여럿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도 공부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다. 일을 핑계로 공부를 멀리하는 제자를 참아주셨다가 공부의 언제나 우리의 일이어야 함을 기회를 보아 다시 일러주신다. 꼭 좋은 성과를 내는 전문 연구자를 예로 삼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선생님의 학부,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성취를 아주 흐뭇하게 얘기하시곤 했다. 학부수업에 쏟는 선생님의 애정은 사실 벌써 오래전부터 제자그룹에 알려져 있다. 학생들의 풋풋한 노력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고전학이라는 학문의 특징과도 연관되는 것일 텐데, 공부의 일정한 단락을 짓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기까지 들여야 하는 시간의 품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어려움은 선생님께서도 종종 경험하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함을 더 강조하는 것인지 모른다. 발표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을 다듬고 원고를 고쳐 쓰는 일을 계속 하실 때도 적지 않았다. 2011년 국제수사학사학회 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했을 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그랬다. 나는 우리의 두 분 선생님과 동행했고 학회장 소인 볼로냐에 앞서 로마에서의 며칠을 계획했다. 포로 로마노도 다시 걷고 싶었고 캄피돌리노 광장에도 다시 오르고 싶었다. 쓰지 않은 발표문 걱정은 슬그머니 내려놓고 열심히 로마를 돌아다녔다. 뜨거운 햇빛을 받고 다닌 뒤라 이내 피곤해진 나와 달리, 플라톤을 더 읽으며 조용히 낮 시간을 보낸 선생님은 저녁산책을 하며 생각을 계속 다듬으셨던 것 같다.

첫 번째 지리산은 가볍지 않았으나 즐거운 추억이 많은 산행이었다. 선생님과의 오랜 공부의 사이사이 제자들은 이런 저런 계기로 함께 산에 올랐다. 계획하고 계시는 세 갈래의 큰 공부 주제가 있다 하셨다. 이들을 꾸려내실 때마다 제자들과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는

점검의 시간도 마련하실 것이고 따라서 선생님과 산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책보를 챙겨 마음 맞는 산사를 홀로 찾곤 하시는 선생님의 걸음은 성큼 깊으시다. 마음에 새겨두신 서원마당이나 풍광에 딱 들어맞는 옛 집들의 농임새 그리고 착실한 학생을 떠올리시거나 여행지에서 겪으신 곤란 등을 들려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이 나와 같이 제법 오래된 제자들에게는 쉽 없는 공부를 격려하시는 선생님의 따뜻한 꾸짖음과 함께 떠오르는 우리 선생님 최고의 모습이다.